

기관돌보기 | 단양노인복지관

어르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내일

단양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의 사회적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07년 개관 이후 19년 동안 노인일자리, 건강·여가, 디지털 교육 등 실질적인 복지사업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해 구인사 효(孝) 잔치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매년 5만장의 연탄 지원과 집수리 사업을 통해 따뜻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등 생활 밀착형 복지 실천에 힘써 지역사회의 깊은 신뢰를 쌓아왔다.

이러한 노력은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으로 이어지며, 단양노인복지관이 지역 어르신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 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편집자주)

충청북도 단양군에 위치한 단양노인복지관(관장 최은하)은 2007년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문을 열었으며, 2018년부터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

현재 단양군 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여 복지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단양군은 2개의 읍과 6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4월 말 기준 인구 2만7086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만651명으로, 전체의 39.32%에 달한다.

이 가운데 단양노인복지관 회원은 5640명이며, 매일 약 370명의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복지관은 교통 이용이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노인 맞춤형돌봄 서비스를 통해 1200가구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중 '구인사 효(孝) 잔치'는 2023년부터 매년 열리는 대표 행사로, 약



단양노인복지관 직원 단체사진

지역의 맞춤형 서비스로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삶의 질 향상 이뤄 19년간 쌓아온 신뢰와 헌신... 충북 22개 복지관 중 최상위 성과

11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세대 통합의 장이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은 물론, 지역사회에 노인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저소득층 어르신 100가구에 매년 총 5만장의 연탄을 지원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창틀 교체, 단열 개선, 보일러 점검 등 집수리 사업도 병행하여 열 효율을 높이고, ESG를 실천하는 생활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이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기차여행과 소백산 자연 탐방 등 개별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어르신뿐 아니라 동행한 자원봉사자들의 만족도도 높아, 참여형 복지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복지관은 노인복지 6대 사업을 기반으로 총 2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건강관리, 여가활동, 일자리 연계, 상담,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 기기 교육, 영상통화 실습, 온라인 쇼핑 체험 등 정보화 교육이 어르신들의 디지털 자립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양성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노인의 역량과 경험 기량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어르신들의 권익 증진은 물론, 공동체 내에서 존중받는 노년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단양노인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세심하게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다.

건강 증진, 여가활동, 사회참여는 물

론이고, 단양군 보건소, 취업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최신 기술을 접하고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은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19년간 이어온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두 차례 보건복지부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전국 사회복지시설 운영 평가에서도 상위 5%에 해당하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아울러 2020년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관리 우수기관 지정과 도지사 표창 수상 등은 지역사회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은하 관장은 "단양은 농촌 지역이라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이 많아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직접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마을 거점을 중심으로 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에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봉사자와 참여자 모두 고령층이 많아지고 세대 간 격차도 커져, 노인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적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현행 소득 기준으로 인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현실적인 기준 조정과 정책적 관심, 지역사회의 적극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단양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KH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차재구 본부장이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백운기 사무총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힘든 복지현장에 '건강한 힐링' 따뜻한 후원

건협-협의회에 3년 연속 도내 시설종사자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KH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본부장 차재구, 이하 건협)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이하 협의회)와 함께 13일, 건협 6층 건강문화홀에서 3년 연속 사회복지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건협은 전국 17개 시도지부를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검진 기관이다.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는 국내 유일의 세계보건기구(WHO) 인증기관이며, 최첨단 의료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추고 국가건강검진, 암검진 등 다양한 종합 검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충북 도내 연간 10만명이 이용하는 종합 검진기관이다.

특히 2023년부터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협의회가 주관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 '건강한 힐링' 거점병

원으로 선정되어 3년 연속 도내 시설종사자에게 다양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재구 본부장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사업 진행으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응모 회장은 "건협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에 매년 큰 힘을 얻는다"며, "함께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변화는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기부금 전달식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협력하는 두 기관의 상호협력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건협과 협의회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충북 출생아 수 '평중', 작년 대비 11.2% 상승

1~4월 2768명 기록... 촘촘한 출산장려 정책 등 효과 분석

충북도의 올해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출생등록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충북의 출생아 수는 총 27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277명)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인 7.2%를 웃돈다.

1~4월까지 충북의 출생아 수는 2023년 2655명에서 지난해 2491명으로 164명 줄었다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런 출생아 수 증가율은 인천 14.3%, 대구 12.2%에 이어 전국적으로 세 번째다.

도내 11개 시군 중 6곳이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5곳이 소폭 감소했다. 시군별 출생아 수는 청주(1814명), 보은(27명), 영동(51명), 괴산(30명), 음성(99명), 단양(22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또 충주(300명), 제천(146명), 옥천(42명)은 줄었다.

도는 이런 출생아 수 증가에 대해 저

출산 대응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지난해부터 5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초다자녀 가구에 대해 매년 5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인구감소 지역의 4자녀 양육 가정에 대해서도 연간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 가정에는 분유 구매 비용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다태아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지난월부터 시행했다.

기존 때 못한 태교 패키지 지원사업에 이어 성금으로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과 청남대를 활용해 태교 여행도 지원한다.

곽인숙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등이 임신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 흐름의 이유인 것 같다"며 "아이 낳고 기르기가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해 더 출산하고 든든한 지원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단양군에 위치한 단양노인복지관 전경



단양노인복지관은 봉사자들과 함께 연탄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장애인생산물 구매는 또 다른 후원입니다.

구매문의 충청북도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043-238-4577

충청북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보은군, 인구정책 조례 개정 전입 유도 확대

전입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전입유공 대상 확대 등

보은군은 인구감소 문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정책 추진을 위해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인구 3만명 붕괴 위기를 타개하고자 그동안 추진해 온 인구정책 및 귀농·귀촌정책과 더불어 인구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을 유도하는 내

용을 조례에 담았다.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는 전입장려 정책의 군내 거주 기간 기준 완화 및 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다.

군은 전입장려금 지원,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 지원,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등에 적용되는 군내 거주기간 기준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

화했으며 전입 환영물품 지급 내용을 신설해 전입 세대에게 생활용품 키트를 제공하는 등 전입세대의 부담을 줄여 유연한 인구 유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대상에 '비영리 민간단체'를 새롭게 포함해 단체 소속 회원들의 전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지역사회 인구 증가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또한 민선8기에서 추

진하고 있는 '내 고장, 내직장 주소값기' 운동을 보은군청 및 지역의 각종 공공기관, 기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추진해 보은 인구 3만명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안진수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맞춤형 인구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인구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감물면 오성리에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준공식을 갖고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다.

괴산군, 체육·문화 거점 ‘감물 다목적체육관’ 준공

35억원 투입... 연면적 793.48㎡ 지상 1층 규모

괴산군은 감물면 오성리에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체육관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공모사업에 선정되

면서 추진됐다.

이번 사업에는 총 35억원을 투입했고, 연면적 793.48㎡의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됐다.

시설 내부는 탁구, 배드민턴, 족구 등 다양한 실내 체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됐으

며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시설은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괴산군은 이번 체육관 개관으로 생활체육 사각지대에 있던 군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지역 행사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

해 지역 내 문화·체육·복지의 거점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송인현 괴산군수는 "이번 체육관 준공은 주민 건강 증진과 함께 활기찬 공동체 형성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생활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살기 좋은 괴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증평군,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동심원 프로젝트 학습 선순환 체계 구축

증평군이 충북도 주관 '2025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도비 2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습선순환 구축을 위한 재미있는(FUN) 동심원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평생학습센터를 거점으로 한 마을 중심의 학습 확산 모델을 제시하며 높은 평가를 받

았다.

교육은 증평읍·도안면 평생학습센터와 지역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에서 분산 운영되며, 교육 수요자는 활동가로 연계돼 다시 마을의 배움터로 파견된다. 학습 참여자에서 강사로 전환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중고령

자 대상 스마트폰 기초활용 교육 '내 손안의 효자', 경력단절 여성 대상 '그림책 전문 지도사 양성과정', 그리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림책 기반 힐링 원예치료 마음 치유 독서 프로그램' 등이다.

군은 특히 스마트폰 교육 이수자 중 일부를 '노노(老-老) 시민 강사'로 육성할 계획이며, 그림책 교육을 이수한 시민 강사들은 아동 및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돌봄을 병행

하는 복합형 마을활동가로 성장하게 된다.

이들은 작은도서관 등에서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내 교육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기여할 전망이며, 이번 사업은 군이 지향하는 20분 도시 구축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군 관계자는 "교육이 단절되지 않고 순환하며 성장하는 증평형 평생학습 도시 모델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군, 중·고생 해외연수 전액 지원한다



괴산군에서 지난해 진행한 '아웃도어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고교 2학년 호주 연수 등... 중학생 200명 해외연수 지원 송인현 군수 “모든 학생이 세계 무대로 성장할 기회 제공”

괴산군은 올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사업 목적으로 괴산고등학교와 지역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학생 해외연수를 재개하고 올해는 중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외 체험학습 지원으로 지역 학생 모두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돕기 위해 열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며, 체험비도 전액 군에서 지원해 학생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우선 괴산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아웃도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국내의 자연·인문·역사 자원을 활용한 환경과 생태를 체험하고 봉사활동과 탄소 중립 실천 활동 등에 참여한다.

또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자율성과 지도력을 함께 키울 기회를 제공한다.

괴산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오는 8월 호주 시드니 일원에서 '글로벌 리더십 체험학습'을 한다. 블루마운틴 탐방, 시드니대학교 견학, 오페라하우스 미션 체험 등 심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는 2019년 이후 코로나 19로 중단된 고등학생 해외연수가 6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지역 내 7개 중학교(괴산중, 괴산북중, 괴산오성중, 칠성중, 청천중, 송면중, 청안중) 학생은 '글로벌 청소년 해외연수'를 떠난다.

총 5억원의 예산으로 약 200명의 중학생이 학교별로 다양한 국가를 방문해 해외 문화를 체험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는 기회를 얻는다.

송인현 괴산군수는 "모든 학생이 국내외 체험학습을 통해 세계를 무대로 도전하는 성장 기반을 자연스럽게 다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국내외를 넘나들며 세계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군, ‘농촌 왕진버스’ 성황리 운영



영동군은 황간농협과 협력해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

마을별 순회 버스 통해 접근성 강화

영동군이 황간농협과 협력해 황간농협 농산물집하장에서 운영한 '농촌 왕진버스'가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농촌 왕진버스'는 지난 9

일 열렸으며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지역의 고령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임시 진료실을 마련하고, 마을별로 순회 버스를 운행해 주민들이 더욱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농촌 주민들이 반복적인 노동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겪는 현실을 반영해 침·부항·온찜질선 열 치료 등 한방 치료가 큰 인기를 끌었다.

한편 군은 오는 10월에도 영동농협의 협조를 받아 영동을 일원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옥천군,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

동이면 5자녀 가정에 최대 5000만원 리모델링 지원

옥천군이 충청북도·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충북개발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및 인구위

수해가주로 선정됐다.

수해가구는 지역 내 사회보장협의체 및 이장 추천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를 1차적으로 발굴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앞으로 노후 주택의 공간 재배치, 구조 효율화, 낙후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이 이뤄질 예정이다.

SSN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지면	규격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 x 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 ~ 7면	4단 (360mm x 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250,000
	세로포스터 (150mm x 195mm)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인원 확대

지원 인원 10만7000명… 대학 졸업예정자도 포함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의 신규 채용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추가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취업예정으로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호응이 높다. 2023년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만성적인 구인난이 있던 기업이었으나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신입사원 연봉 인상, 노후 시설교체 등 청년들을 위한 복지를 개선한 결과 청년 구직자의 입사 지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한편, 장기 실업자이던 청년도 기업의 경력직 선호로 걱정이 많았으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이 되어 직업훈련을 받

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취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10만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7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최근 청년 고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력직 선호도 증가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것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는 이번 추경을 통해 청년에 대한 근

속 인센티브를 조기에 지급하여 청년구직자와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정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취업후에도 근속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하여 중간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지원금 최고 40만원 인상

내달 2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 이동통신 앱에서 신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3일부터 6월 23일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월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특히, 이번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최고 40만원까지 인상된다. 구체적으

로 국가장학금 I 유형 및 다자녀 3자녀 이상 장학금의 각 1~3구간은 30만원(다자녀 40만원), 4~6구간은 20만원(다자녀 25만원), 7~8구간은 10만원(다자녀 15만원)이 인상된다. 이번 지원은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해당하는 약 100만명(전체 대학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157억원이 증액·반영됐다. 해당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

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I 유형을 통해 1~3구간 15만원, 4~6구간 10만원, 7~8구간 5만원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다자녀 장학금을 통해서는 1~3구간 20만원, 4~6구간 12만5000원, 7~8구간 7만5000원을 인상하여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5년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늘리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하였으며, 기초·차상위 대

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대학생 가구의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여 이번에만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목욕 스마트돌봄스페이스 내부(목욕 돌봄로봇).

장애인·노인 목욕 등 돌봄, 이제 로봇이 돕는다

돌봄 로봇 활용한 ‘스마트 병실’ 추가 개소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2일 장애인과 노인의 일상생활 보조 및 돌봄부담 감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의 일환

으로 4차 스마트돌봄스페이스와 목욕 스마트돌봄스페이스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돌봄로봇에 대한 현장실증을 수행하

고 장애인과 노인, 돌봄자가 시범적으로 거주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돌봄로봇 전시체험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이번에 개소된 4차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돌봄로봇과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병실환경을 고려하여

구축됐다.

병실환경과 유사하게 간호사 호출(너스콜)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사용자(장애인·노인)와 돌봄자에게 필요한 낙상 및 자세변환 감지가 가능한 모니터링 센서, 체중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동침대, 별도의 슬링이나 레일 등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범위로 이동이 가능한 이송기기 등의 돌봄기기를 배치했다.

이를 통해 병실 환경에서 돌봄로봇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휠체어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걸맞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하였고, 현관 및 욕실에는 자동문이 설치되었으며, 위생을 위해 세면대를 추가 설치했다.

목욕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시설, 병실, 가정 등의 목욕 돌봄로봇 및 기기 실증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돌봄부담이 큰 분야 중 하나인 목욕 돌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고용노동부, 중장년 재취업 훈련 확대

만 40세 이상 대상… 1~2개월 집중 훈련과정 신설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퇴직했거나 이·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2800명에서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우리 경제의 주축을 이뤄왔던 중장년(제2차 베이비붐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장년층의 직업전환과 노동시장 재진입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는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술 역량을 높이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으로, 지난해 참여 경쟁률이 2.6:1을 기록했고, 50대 이상 훈련생의 비중도 77.4%에 이를 정도로 현장의 수요가 높은 과정이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장년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생계를 위해 집중 훈련과 신속한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의 수요를 고려하여 1~2개월의 집중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훈련생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야간·주말 과정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40세 이상 구직자뿐

만 아니라 이·전직을 준비하는 중장년 등도 수강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중장년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중년특화과정을 수료한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중장년 경력지원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중장년 경력지원사업은 경력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해당 분야의 현장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규모를 당초 900명에서 2000명까지 확대했다.

두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중장년들이 ‘직업훈련 → 일경험 → 취업’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부,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실시

가정폭력 등 법률 지원

여가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한국여성보호사회와 협업해 올해부터 교제폭력 등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이하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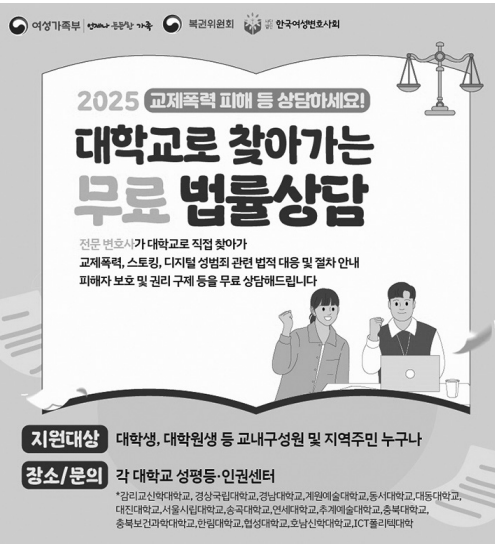
무료 법률상담은 지난해 6월 여가부가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디지털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 등의 폭력피해 발생 비율이 높은 2030 세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2003년부터 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

소송 지원 및 법률상담 등을 제공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폭력 피해 유형의 다변화에 따라 스톱킹·교제폭력 피해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2168건의 소송구조와 9426건의 법률상담을 지원했으며, 스톱킹 소송구조 건수도 2023년 47건에서 2024년 111건으로 크게 늘었다.

교제폭력 소송구조도 같은 기간 26건에서 65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가정폭력·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포함)·스토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 포스터.

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5개의 사업수행기관에서 맞춤형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확대

응급실 내원 연 100만원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세~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살시도자’란 자살시도 또는 자살 의도가 있는 자해 행동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말한다.

청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간 청년층 자살시도자

에 대한 초기 개입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올해 5월부터는 생명사랑위기관대응센터(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기관) 내원 요건을 폐지하여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되어 있으며,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한 단체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 지원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관리
봉사활동 연계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충북모금회는 지난 7일 충북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에서 지게차 전달식을 진행했다.

충북광역푸드뱅크, 나눔 현장 날개 달다

충북모금회, 물류센터에 지게차 지원

취약계층 후원 물품 신속·안전 전달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 이하 충북모금회)는 지난 4월에 개소한 충북광역푸드뱅크(회장 유응모) 물류센터에 지게차 1대를 지원했다고 7일 밝

혔다. 지게차 전달식은 충북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에서 충북모금회 이민성 회장과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유응모 회장, 지원물품을

수령하기 위해 온 시·군 기초푸드뱅크 25개소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지원은 새롭게 문을 여는 물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후원물품 관리, 이송 작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된 지게차는 5500만원 상당의 2.5톤 좌승식 모델로 푸드뱅크가 보내 취약계층을 대상으

로 한 식품 및 기타 후원물품 지원사업 등을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성 회장은 “충북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가 식품은 물론 생필품, 위생용품 등 다양한 나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달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교구 충북재활원, ‘마리아의 집’ 증축 축복식

고령 발달장애인 거주 개선

청주교구(교구장 주교 김종강)는 8일 청주 충북재활원에서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 충북재활원 ‘마리아의 집’(원장 김성우) 증축 축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새 시설에서 개최된 준공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시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김종강 주교 등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축복예식,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마리아의 집은 1989년도에 지어진 기존건물 1개동이 철거된 자리에 지하 1~지상 2층, 연면적 1998㎡ 규모로 건립됐다.

장애인 60여명과 종사자가 쾌



충북재활원 마리아의 집 증축 준공식에서 김종강 주교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 강당, 회의실, 생활관 등을 갖췄다.

장애인 고령화를 대비한 병실 등 특성화 공간은 물론 외부데크, 불박이장 등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해 장애인 이용 편의를 고려했다.

사업비는 국비 등 45억원(국비 22.5억, 도비 14.5억, 시비 8억)과 운영법인 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자부담비 12억원 등 총 57억원이 투입됐다.

김종강 주교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삶으로 드러내기에

는 힘든 현실이지만 이를 삶으로 실천한 분이 마리아”라며 “성모님의 이름을 딴 것처럼 마리아의 집 공동체가 하느님께서 비천한 이를 돌보시고, 낮은 이를 끌어올리는 분이심을 몸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예비 위탁부모 발굴

제도·자격 안내 등 캠페인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장화정)는 17일 오창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 어린이 환경축제 ‘에코 그린데이’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비위탁부모 모집을 위한 가정위탁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캠페인은 5월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기념하여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내 예비위탁부모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축제를 찾은 많은 지역주민들이 부스에 방문해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관심을 보



였으며, 총 170명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4명의 예비위탁부모 교육 신청자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

었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이번 캠페인에서 가정위탁제도 소개,

예비위탁부모 자격 안내, 교육 과정 안내와 더불어 SNS 이벤트를 통해 가정위탁의 의미를 지역사회에 알렸다.

장화정 관장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정위탁의 의미를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많은 분들이 위탁부모 활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가정위탁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합한 가정을 제공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서비스로,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과 위탁가정을 지원하는 충청북도 지정 아동복지전문기관이다.

공공·유관기관 함께 위기가구 고독사 막는다

청주시·청주우체국·서부종합사회복지관 협약

안부살핌소포 우편서비스… 정보 파악 맞춤 제공



청주시·청주우체국·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안부살핌소포 우편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는 고독사 고위험군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19일 청주우체국,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태순)과 ‘안부살핌소포 우편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한인숙 청주우체국장, 김태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참석했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는 집배원이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 필요한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면서 파란 위기 정보를 신속히 시에 전달해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가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주관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토대가 마련됐다.

이번 사업을 위해 시는 지역 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우체국의 안부 확인 화신 결과에 따라 대상자 대응 및 조치를 담당한다.

우체국은 물품 전달 과정에서 진행한 안부 확인 및 체크리스트 결과를 시에 회신하고,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필요물품 선정과 위기 대상자에 대한 민간 자원 연계·지원을 맡을 계획이다.

세 기관은 도움이 필요한 80명을 선정해 오는 12월까지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범석 시장은 “이번 협약을 위해 애써주시는 청주우체국, 서부종합복지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로 고독사 위험 가구의 복지안전망이 더욱 촘촘하게 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문화시니어클럽 “충주할매약과 맛보세요”

조청 명인 협업, 매장 개소

충주문화시니어클럽(관장 박보경)이 운영하는 전통 약과 브랜드 ‘충주할매약과’가 13일부터 충주시 지현동에 위치한 매장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송덕원 과 충주시 관계자, 농업회사법인 강봉석조청, 충주문화시니어클럽 소속 노인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매장 라운딩과 제품 소개, 업무 협약식 등이 진행됐다.

이번 업무 협약의 핵심 파트너인 강봉석조청은 조청 부문 국가 지정 제32호 식품 명인 강봉석 대표가 운영하는 전통 식품기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충주할매약과 매장에 전통 약과를 진열하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충주할매약과’는 전통 조청을 주요 원료로 사용 가능하게 되어 약과의 풍미와 품질은 물론, 전통성과 고유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박보경 관장은 “충주할매약과

는 전통의 계승을 넘어 지역과 상생,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 있는 가치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보조기기센터, 저소득 희귀질환아동 맞춤형 지원

내달 11일까지, 1인당 300만원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센터장 김종석, 이하 보조기기센터)는 월 드비전과 함께하는 저소득 희귀질환아동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2025년 저소득 희귀질환아동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월 드비전(사회복지법인)의 후원으로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와 협력하여 16개의 광역 보조기기센터가 함께 수행한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 희귀질환아동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보호자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지원받은 보조기기를 활용해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23세 이하의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가 신

청 가능하다.

지원 품목은 1인당 300만원 미만의 개인용 적합 맞춤형 보조기기를 이동, 학습, 일상생활, 사회참여 등 영역과 품목 개수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및 의지보조기는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6월 1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업 정보, 제출서류 등 신청 방법 안내는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www.cbat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 유관기관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유복지플랫폼

‘충북복지넷’



50대 고용절벽 해소, 정부가 나섰다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 발표

유망자격 기반 산업 맞춤 일자리 재진입 유도… 현장 경험 없는 50대 위한 맞춤형 실전훈련 7500명 대상 폴리텍 중심 신중년 훈련 체계 구축 및 중장년 인력 매칭 시범사업 추진 예정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5일, 중장년층의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한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최근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50대 고용률을 반전시키기 위한 이번 대책은, 이·전직 수요가 높은 50대 계층에게 실질적인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방안은 특히 조기 퇴직과 기술 변화로 인한 재취업 단절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주목해, 50대 중장년이 노동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다각적 전략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일자리 발굴, 훈련기회 확대, 경력지원제, 통합 고용지원 체계 구축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50대 맞춤형 일자리 발굴 확대

정부는 우선 50대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 안정적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층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각 산업별·권역별 유망 자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취업률이 높고 진입장벽이 낮은 자격증 5종(예: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전기기능사 등)을 분기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러한 유망자격군은 실습 중심의 단기교육만으로도 취득이 가능하며, 실제 취업률도 5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비전공 경력자나 퇴직 후 제2의 직업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자격증을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 수요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인력 수요를 반영한 매칭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 일자리 수요조사와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컨설팅'도 시행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인사·노무 분야 경력자를 '고용 플래너'로 위촉해, 지역 기업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인력 유형과 근로 조건을 진단하고 인력 매칭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식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50*에게 추천하는 5대 자격 (’25.5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격명	직무분야	합격률	취업률	비고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기계	27.5%	63.9%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가능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기계	29.1%	63.5%	
송강기기사	기계	69.6%	57.3%	
에너지관리기사	환경, 에너지	46.5%	57.4%	
전기기사	전기, 전자	53.3%	54.9%	

■ 직업훈련 기회 대폭 확대

정부는 훈련 기회 자체가 부족한 50대를 위해 전국 폴리텍 중심의 '신중년 특화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이 과정은 직무 전환을 고려하는 중장년층에게 자격취득과 실무 기술 습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퇴직 후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에게 기술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올해 총 7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재직 중 이·전직을 준비 중인 사람을 위해 야간 및 주말 반도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기초기술, 전기설비, 기계유지보수, 시설관리 등 중장년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훈련 후 자격시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이외에도 유망 자격취득을 위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확대하고, 50대 전용 훈련 상담창구를 통해 입문자 맞춤형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각 지역의 고용센터에 '50+ 훈련전문가'를 배치하여 상담-수강-취업까지 연계된 밀착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경력 단절 해결 위한 '경력지원제' 가동

훈련을 마쳤더라도 현장 경력이 없어 실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정부는 '경력지원제'를 확대 실시한다. 이는 취업 취약계층인 50대 조기 퇴직자, 사무직 단절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기업 현장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당초 910명 대상으로 시작했던 경력지원제는 추경을 통해 2000명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참여자는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업 측에는 월 4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중장년 채용을 장려하는 구조다. 참여자는 일반 행정지원부터 고객응대, 사무관리, 기술보조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경력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추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컨설팅트의 밀착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자 중 일부는 이후 인턴이나 계약직 전환을 통해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 중장년 통합 고용지원 체계 구축

지역 내 고용복지 전달체계를 하나로 묶는 '중장년 고용 네트워크'도 본격 운영된다. 고용센터와 내일센터, 새일센터, 폴리텍,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현장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장년 인력을 매칭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예컨대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협업한 마을버스 운전기

초고령사회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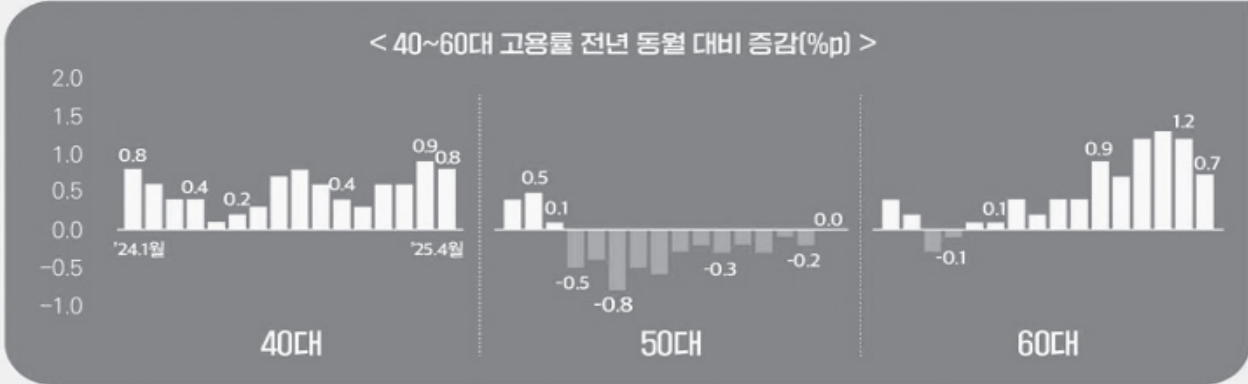
'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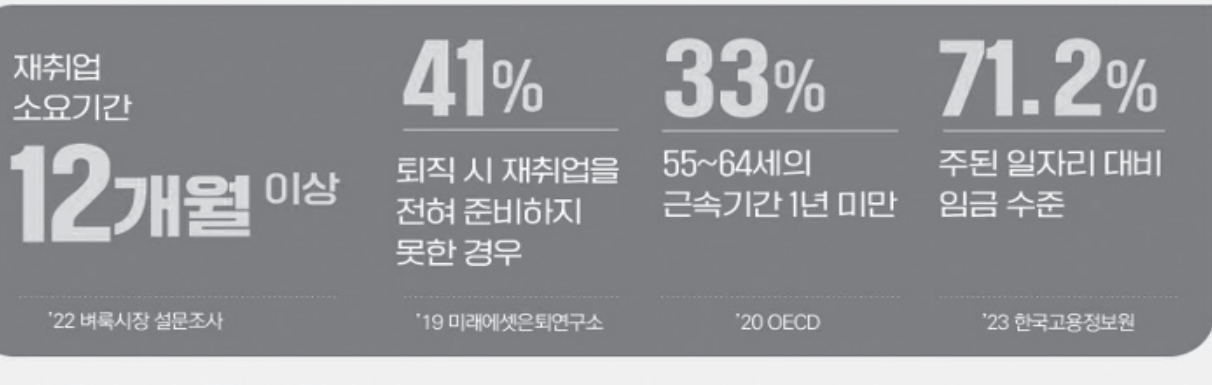
50대
(2차 베이비부머, '64~'74년생)
대규모 은퇴

954만명

고용은? 50대 고용률은 장기간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추세('24.4월~)



퇴직 후 재취업은?



사 취업 연계사업이 대표적이다.

미충원율이 높은 마을버스 운송직에 자격취득비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고용노동부는 경력지원제를 연계하여 100여명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이러한 모델을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시켜, 지역 맞춤형 중장년 일자리 발굴과 정책 연계의 모범 사례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 취업정보 플랫폼도 연계하여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중장년층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 50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가상사례

사례① 사무직에서 기술직으로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53세 ㄱ씨 25년간 식품 회사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조기 퇴직한 ㄱ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고용센터 전담 창구에서 심층 상담을 요청했다. 컨설턴트가 ㄱ씨의 적성에 맞으면서 취업도 잘되는 전기기능사 자격취득을 추천했고, 폴리텍 신중년 특화 과정을 안내해주었다. 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ㄱ씨는 경력지원제를 활용해 한 제조업 회사에 2개월간 일경험을 했다. 신입 직원의 자세로 현장에 열심히 쫓아다니고 젊은 직원들에게도 먼저 다가가 배우기도 했다. 2개월 후 특별 채용심사를 거쳐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사례② 정규직 일자리를 찾고 있는 58세 ㄴ씨

50대 초반에 퇴직한 ㄴ씨는 단기·시간제 아르바이트 위주로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다 60대에 접어들기 전, 마지막으로 정규직 재취업에 도전하고 싶어 고용센터에 방문했다. ㄴ씨 지역 중장년고용네트워크에 참여하는 ㄴ씨 일자리재단이 마을버스 운송조합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여했다. 이미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으므로 버스 운전 자격만 취득하면 최근 구인난을 겪는 마을버스 운송업체에 채용되기 쉽다는 조언을 얻었다. ㄴ씨에서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받고, 경력지원제를 통해 ㄴ씨 시내버스 운송업체에서 1개월 동안 일 경험을 쌓았다. 이후 ㄴ씨는 관련 자격과 경험을 바탕으로 ㄴ씨 마을버스 운송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이고 954만명의 2차 베이비붐 세대 50대가 대규모 은퇴를 앞두고 있다”며, “최근에는 12개월 이상 50대 고용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등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50대를 위한 취업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일자리 발굴, 훈련, 일경험, 취업 지원 등 전방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① 일자리 발굴

- 분기별, 지역별 유망자격·일자리 분석
- 고용플래너 통한 기업 현장 방문조사 및 일자리 컨설팅

③ 일경험

25년 2,000명

- 중장년 경력지원제 통해 기업현장에서 경력쌓기 기회제공

② 직업훈련

25년 7,500명

-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7,500명에게 집중훈련코스 제공
-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특화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유망직종 훈련과정 개설

④ 취업 지원 서비스

25년 56,000명

- 지역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시범 운영
- 중장년 사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합 제공 (EX : 사무직 조기퇴직자, 구인난 일자리 취업 희망자 등)

복지광장



장 화 정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레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그래서 5월에는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제정되어 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세계 가정의 날, 부부의 날처럼 말이다.

그리고 5월 22일은 '가정위탁의 날'이다. 아직은 좀 생소한 가정위탁의 날은 친가정과 위탁가정 두(2)가정이 내 아이와 위탁 아이 두(2)아이를 행복한 가정에서 키우자는 의미이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수감, 아동학대 등으로 친

부모의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양육하며 보호하는 제도이다.

'가정'이란 말이 손에 잡히지 않는 꿈처럼 느껴지는 아이들에게, 위탁가정은 임시이지만 따뜻한 안식처다. 위탁부모는 법적 입양 관계는 아니지만 아동에게 사랑과 돌봄을 전하며 '진짜 가족'이 되어 준다.

충북 도내에도 보호가 필요한 약 400여명의 아동들이 위탁가정의 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얼마 전 도내 위탁부모님들과 자조모임을 가져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따뜻한 자리를 마련했다.

참석자 중 한 위탁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00이를 처음 만났을 땐 눈도 마주치지 않고, 품에 안기는 것도 어려워했어요. 사랑을 주고 싶지만 닿지 않아 지치기도 했죠. 주변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말렸고, 후회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생일 아침 아이가 꼭꼭 눌러 쓴 쪽지를 건냈어요. '엄마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그 한 줄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00이를 키우는 게 제 인생 최고의 일이에요. 지금은 00이 없는 집은 상상도 안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눈가가 금세 촉촉해졌다. 차분히 진심을 다해 말씀하시는 어머님 목소리에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

위탁부모님들의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하나씩 들을 때마다 감동의 박수 소리는 더 커져만 갔고 아동의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반짝이고, 표정도 한결 행복해 보였다.

이 일이 결코 쉽지않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로서는 그저 고개가 끄덕여질 따름이었다.

위기 속 아이들은 마음에 문을 닫고 살아간다. 그러나 위탁가정의 따뜻한 밥 한 끼, 말 없이 등을 토닥이는 손길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세상과 마주할 힘을 얻는다.

어느 날 위탁가정을 방문했을 때, 위탁아동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소 수줍은 듯한 아동은 작은 목소리로 "저도 나중에 커서 다른 아동을 돌볼 수 있어요? 저처럼 혼자였던 애요."

"그럼, 가능하지. 커서 어른이 되면 꼭 다른 아이를 돌봐 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일이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랑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것을. 이 아

이가 또 다른 아이의 희망이 되고 싶다고 말한 그 순간, 이미 누군가의 '가족'이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를 나눈 사람들, 한 집에 사는 사람들? 살아가다 보면 그보다 더 깊고 넓은 의미의 가족을 만나게 된다.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서로를 품어주는 이들이 '진짜 가족'일지도 모른다.

가정위탁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어떤 아동에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고, 또 다른 아동에게 세상에 다시 마음을 열게 해주는 따뜻한 손길이 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아이의 상처를 마주하고, 밤잠 설치는 날도 많다. 하지만 위탁부모님들은 말한다. "아이의 웃음을 보면 그 모든 고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정의 달 5월, 꽃다발과 케이크 속에 가족의 사랑이 오간다. 이 따뜻한 시간 속에서,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과 그들에게 품을 내어준 위탁부모님들을 함께 떠올려 보면 어떨까?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가족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의 인생에 '가족'이라는 기적을 만들어준 위탁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복지칼럼

바람, 봄



신 정 인

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장

요즘 들어 봄바람이 유난히 시원하게 느껴진다.

마음까지 맑아지는 계절이지만, 연이어 들려오는 안타까운 사건·사고 소식에 그 청량함은 금세 사라지곤 한다.

사회복지사로서 특히 마음에 남는 건, 지역사회 구성원이 정신질환, 장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가 되었다는 소식이다.

그 사건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 바로, '사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가해자가 되기 전, 그들은 분명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나 이상 징후를 보였다. 그 대상은 가족일 수도, 이웃이나 직장 동료, 혹은 스쳐 지나간 사람일 수도 있었다. 몇 달간 이상 행동을 반복하며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고,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놓쳤거나 혹은 외면했다.

결국 사건은 터졌고, 그들은 '가해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이후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 처벌을 외치고, 그들이 지역을 떠나기만을 바란다.

문득 영화 '영웅'에서 안중근 의사가 부른 노래 '누가 죄인인가'가 떠오른다.

"과연 누가 죄인인가, 발할 자 누구인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져야 한다. 사회복지, 그리고 지역사회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우리는 왜, 언제까지 이 같은 패턴을 반복해야 하는가?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진 오늘날, 그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예전에는 동네 어른들이 이웃의 아이를 함께 돌보며, 혈연이 아니더라도 '할머니', '이모', '삼촌'이라 불렀다.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라는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실제 삶의 방식이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시선이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 많다. 방법을 몰라도, 조금만 알아보면 충분히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은 결코 어렵지 않다.

6년 전, 시청의 긴급 요청으로 한 내담자에게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흥분한 상태로 현관 너머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고, 경찰과 함께 문을 열자 식도를 든 채 나타났다. 모두가 피신하는 과정에서 나는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고, 이후 증원된 경찰이 진입했을 때는 이미 심한 자해로 쓰러져 있었다. 응급 수술을 마친 후, 회복한 그를 정신병동에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어진 면담을 통해 그가 수면제인 졸퍼뎀을 술과 함께 과다 복용해 환각 증세를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말했다. "선생님, 꼭 꿈인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진 삶을 살던 그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했다. 우리는 종종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편찮아지겠지."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건 스스로 이겨내야지."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결국 누군가는 사고를 겪게 된다. 중요한 건 '내가 직접 마주하는 것'이다. 그런 바라봄이야말로 지역사회를 순환시키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다.

우리 기관은 아직 홈페이지조차 없다. 이제 막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도, 1939년생 어르신 한 분이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매달 5만원씩 정기후원을 해주고 계신다.

감사 전화를 드렸더니, 오히려 미안하다며 더 많이 알리고 계신다고 하셨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관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

그 따뜻한 '바라봄'이 내 마음에도 훈풍처럼 불어왔다.

장애 인권학자 토빈 시버스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인생의 주기는 장애에서 한 시적 비장애로, 다시 장애로 흘러가는데, 그나마도 운이 아주 좋은 때 이야기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자 동시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닦이 먼져나, 달같이 먼져나의 문제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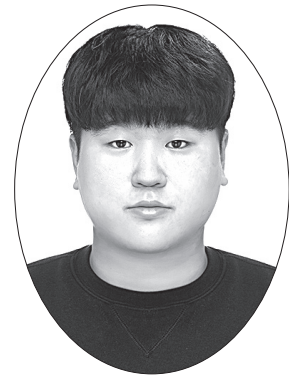
우리 기관은 충청북도 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던 아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해 보호가 종료되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AIP(Aging in Place: 노인이 자신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것) 개념을 함께 떠올려 보면,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과정에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기고문의 제목처럼 '바라봄'은 단순한 '바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마주하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작은 손길 하나가 지역사회 내 공동체 의식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의 목소리



박 지 민

청주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사회복지사

청주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에서 근무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어 간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속 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청소년을 만나고 헤어졌다. 동시에 그들의 수많은 사연도 내 마음속을 오갔다. 근무하며 만난 청소년들은 늘 나에게 많은 질문과 성찰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단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지닌 존재들이었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나의 시선을 바꾸었고, 인간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이 품게 했다.

청소년단기쉼터는 가정 내 갈등, 방임, 학대 또는 일탈 등 다양한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일시적인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전국적으로 66개의 단기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숙식은 물론 상담, 학업·직업 연계,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쉼터는 청소년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복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나는 입사 초기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컸다. 곧바로 야간 근무에 투입되었고, 생활지도와 상담을 주요 업무로 맡게 되었다. 한창 활기 왕성한 청소년들은 밤이 되어도 에너지가 넘쳤고, 말썽을 부리는 입소청소년도 여럿 있었다. 그럴 때마다 달레마에 빠지곤 했다. 혼자 또는 둘이 근무하다 보니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잦았다. 해답은 아닐지라도 스스로 결정해야 했기에, 어떤 사안을 판단한 뒤 나중에 후회한 적도 많았고, 나름의 명분을 찾으며 스스로를 합리화한 경우도 있어 반성을 자주 하곤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욕심보다는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변화는 강요가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온다고 했다. 함께 밥을 먹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하지만 2년 동안 쉼터에서 근무하며 느낀 것은, 쉼터의 전반적인 제도가 여전히 현실과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첫 번째, 미성년자가 입소할 경우 법

적으로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가정 내 갈등으로 힘들어진 청소년에게 이는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절차는 청소년의 자발적인 보호 요청이 어려워지고 다시 원하지 않는 가정복귀를 결심한 청소년도 여럿 보았었다.

두 번째, 사후지원 지속의 어려움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퇴소청소년들은 가정복귀를 하더라도 이내 갈등이 재발하는 경우와 타 쉼터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쉼터퇴소청소년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쉼터의 이용기간 합이 2년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옮겨 겨자 먹기로 쉼터에서 지내는 청소년들도 본 적이 있다. 대개 사후관리에 있어 후원물품이나 자립지원물품에 대해서는 퇴소 후 자립 중인 청소년들에게만 지원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외에는 전화나 문자 연락 등으로 단순 모니터링에 그치고 있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상담자에게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운영 여건의 차이로 인해 청소년이 받는 보호 수준에도 편차가 존재한다. 수도권은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가 가능하고, 수용 인원이나 시설 규모 면에서도 지방과 차이가 있어 청소년들이 수도권으로 입소를 희망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지방의 경우 지자체의 예산 배분, 종사자 수 등의 차이로 인해 시설 간 격차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도 많다.

년들도 많다. 쉼터 간 편차는 결국 청소년의 '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일어서려 노력한다. 상담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 다시 학교에 출석하며 학업을 재개하거나 직업훈련과 아르바이트에 관심을 가지는 등 조금씩 자신의 삶을 회복해나가고 있다. 나는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종사자로서 진정한 쉼터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에릭슨은 청소년기를 자아 정체감 형성의 시기로 보았는데 이 시기의 경험은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청소년기라는 중요한 발달 단계에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어디에서든 균일하고 양질의 생활환경이 보장된다면, 쉼터는 단순한 보호 공간을 넘어 청소년이 자신을 발견하고 한 단계 성장하는 여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쉼터는 사회가 위기 청소년에게 보내는 응답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를 품은 공간이다. 더 정교한 제도와 현실적인 지원이 마련된다면, 이곳에서의 머무름이 청소년에게 더 깊은 회복과 자립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나는 오늘도 그들과 함께 머무르며, 작지만 따뜻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똑똑똑! 법률홈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민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이 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마음에 맞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현재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외에도 혼인신고를 한 부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상 권리

하지 않았으므로 혼인신고를 전제로 발생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사실혼 배우자의 가족들과 사이에서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서로 결혼을 전제로 하여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할 뿐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도 부부로서 공동생활

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인신고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는 혼인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도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가 있고,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면 책임이 있는 배우자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 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복지정보 제공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 · 기관 종사자
- 발송내용: 도내 사회복지 행사 안내 및 유관 기관 공모사업 제공
- 발송횟수: 주 3회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방법: '충북복지넷' 홈페이지(www.043w.or.kr) 팝업창 참고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5년도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진행일시: 3월 ~ 12월 (연중 신청가능)
- 진행장소: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1층)
- 진행대상: 초 · 중 ·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자 및 이용자
-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신청 인원은 회차 40명 이내로 가능함
- 주요내용: 유니버설디자인(UD) 이론 교육, 유디체험관 및 주책체험관 견학
- 신청방법: 전화 접수(T. 043)234-0840~2)
-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신청서 제출
- 참고: www.043w.or.kr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안내]

- 사업내용: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 이용이 힘든 발달장애인에게 욕구 및 지원필요도에 따라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원하는 활동 수행 지원 서비스
- 주요서비스 및 제공시간
- 24시간 개별 1:1 지원(주중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 주간 개별 1:1 지원(이용자 특성에 맞는 1:1 개인별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 주간 그룹 1:1 지원(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사용하는 1:1 그룹형 낮활동 서비스)
- 서비스내용: 도전행동지원, 일상생활훈련, 자립생활, 취미활동 등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043-716-2168~9)

[함께하는 사랑발, 더 나은 국내복지를 위한 신규개발사업 공모]

- 접수대상: 국내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 · 기관 · 단체 · 시설
- 지원내용: 사업 분야별 사업비 지원(최대 300~500만원 지원)
- * 사업 분야: 아동건강성장지원, 청년미래지원, 시니어리더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5. 6. 5.(목)
- 신청방법: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
- 참고: www.withgo.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5년 HUG 드림홈 지원사업(무주택 임차자금 지원)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무주택 취약계층이며 현재 주거하는 임차주택 전세금 및 세대구성원 해당기준에 부합하는 세대(상계기준은 홈페이지 참고)
- 지원규모: 서울 지역 세대 당 1천만원, 서울 외 지역 세대 당 500만원
- 신청대상: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 시설 · 단체(법인) 등 * 개인 신청 불가
- 접수기간: ~2025. 6. 5.(목) 까지
- 신청규모: 기관당 최대 5세대까지 가능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한 접수 및 신청서 제출
- 참고: www.bokji.net

[함께하는 사랑발, 삼계탕으로 함께하는 식사]

- 공모내용: 삼계탕을 매개로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 및 가족과 함께하는 사업
- 신청대상: 전국 사회복지시설 · 기관 · 센터
- 지원금액: 1기관 당 최대 300만원(총 10곳)
- 신청기간: ~2025. 6. 5.(목) 18시까지
- 신청방법: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
- 참고: www.withgo.or.kr

[굿피플,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사업]

- 사업목적: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 향상 및 사회경험 증진을 통한 취업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2025년 5월~12월(8개월)
- 사업대상: 전국 자립준비청년 25명(만 18~34세 자립준비청년 중 취업 희망자)
- 지원내용: 취업교육, 취업컨설팅, 취업캠프
- 신청기간: ~2025. 6. 8.(일)까지
- 신청방법: 구비서류 이메일 신청

[푸르메재단, 2025 효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 지원내용: ① 장애어린이 지원(재활치료비 1인 최대 200만원), ② 비장애형제 · 자매 지원(교육비, 심리치료비 백1~1인 최대 150만원)
- 신청대상: 만 18세 이하 등록 장애어린이/장애어린이 형제 · 자매를 둔 만 18세 이하 비장애형제 · 자매
- 신청기간: ~2025. 6. 12.(목)
- 지원기간: 2025년 7월~2026년 2월
-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보호자 개별신청 불가)
- 참고: purme.org

[오문문화재단, 제25회 牛汀善行賞(우정선행상) 후보자 추천]

- 시상내역: 대상(1인) 상장 및 상금 5000만원, 본상(3인) 상장 및 상금 각 3000만원
- 자격요건: 모범적인 봉사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선행으로 사회에 귀감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1년 이

- 내 동일한 내용으로 수상한 경력이 없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한국인 또는한국 거주 외국인
- 추천인: 중앙행정기관,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장 또는 봉사처, 봉사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협회의 장 또는 일반시민 10인 이상
- 추천방법: 오문문화재단 홈페이지(www.good-new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2025. 6. 16.(월) 자정까지

[굿피플, 2025 보행장애 특수신발 지원사업]

- 지원자격: 보행장애 대상자(8세~34세 미만) 34명 (중위소득 최대 120% 이하)
- 지원품목: 특수신발 2켤레(85만원 상당)
- 신청기간: ~2025. 6. 18.(수)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사례기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개별신청 불가)
- 참고: www.goodpeople.or.kr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국가건강검진 수검 이벤트 안내]

- 참여기간: ~2025. 6. 30.(월)
- 참여대상: 충청북도 등록 장애인 200명
- 참여방법: 참여기간 내 국가건강검진(일반검진, 6대 암검진) 중 1개 이상 검진 시 자동 참여(별도 응모 필요 없음)
- 추정일자: 2025. 7. 31.(목) 예정(등록 주소지로 안내문과 함께 기념상품 발송)
- 상품: 2만원 상당의 고급탐블러
- 문의: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의료지원팀(043-269-2704)

[푸르메재단, MG새마을금고 지역 희망나눔재단 시각 · 청각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만 24세 이하 시각, 청각, 시청각 및 해당 중복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대학원생 포함)
- 신청기간: ~2025. 6. 30.(월) 마감일 지정
- 신청방법: 기관 담당자 이메일 제출(복지관, 병원, 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보조기기센터, 주민센터 등)
- 지원항목: 시각 · 청각 보조기구
- 지원금액: 1인 최대 300만원(현물지원)
- 참고: purme.org

[함께하는 사랑발, 위기가정 희망지원사업]

- 지원대상: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 지원내용: 청소년 결연 지원, 생계 · 의료 · 교육 · 주거 · 심리정서 지원, 긴급한 위기상황 극복 지원, 온라인 모금캠페인 지원
- 신청기관: 아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복지기관(대상자 개인신청 불가)
- 지원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withgo.or.kr) 내 '위기가정 희망지원사업' 페이지 접속 및 신청서 작성/이메일 제출

자원 봉사자 모집

- ▶ **충북사회복지신문 우편발송 작업**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6.1 ~ 6.30
전화번호: 043-234-0840

- ▶ **행정업무 지원**
관리센터: 음성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6.1 ~ 6.30
전화번호: 043-883-2470

- ▶ **장애인 스마트폰 교실 보조**
관리센터: 용암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6.1 ~ 6.30
전화번호: 043-293-9191

- ▶ **어르신 수재화 수업**
관리센터: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6.1 ~ 6.30
전화번호: 043-255-2144

- ▶ **어린이 식당 '친스토랑' 운영 보조**
관리센터: 청주사회복지관
활동기간: 6.1 ~ 6.30
전화번호: 043-253-4493

- ▶ **요리교실**
관리센터: 청주시가족센터
활동기간: 6.1 ~ 6.30
전화번호: 043-263-1817

- ▶ **사무보조 및 환경정리**
관리센터: 단양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활동기간: 6.1 ~ 6.30
전화번호: 043-422-7788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나우리회 · 스마일봉사단 '사회복지가이드' 우편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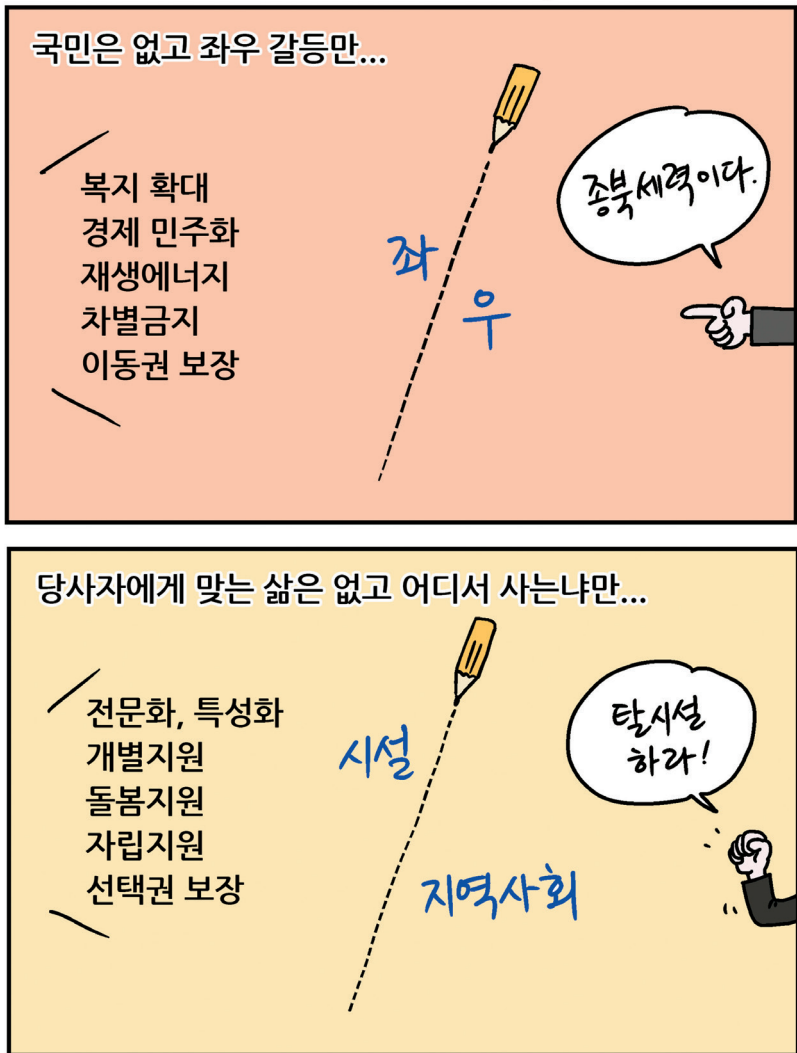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소속 '나우리회(단장 심재훈)' 및 '스마일봉사단(단장 최용순)'은 지난달 24일 충북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에서 '2025 충청북도사회복지가이드' 우편 발송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단은 약 1300건에 달하는 우편물을 분류하고 봉투에 넣는 작업을 함께하며, 도내 사회복지기관 및 유관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을 보탤 예정이다. 한 봉사단원은 "단순한 작업이지만, 더 많은 복지 정보를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가이드는 도내 사회복지기관(단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도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는 자료집으로, 매년 최신 정보를 현행화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누리집(www.043w.or.kr)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만/평

갈라치기

이창신 www.bokmani.com



이분법은 혐오를 양산합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
참여로 지키는 소중한 권리



선거일 투표 6월 3일(화) 오전 6시~오후 8시

사전투표 5월 29일(목)~30일(금)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